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식재료에 나타난 유럽적 요소

李珉慶·韓明淑

상명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상명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European Elements Appeared in Costume Materials of the North American Indian

Min-Gyung Lee and Myung-Sook Han

Instructor, Dept. of Textiles and Clothing of Home Economics Sangmy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s and Clothing of Home Economics Sangmyung University

目次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사회문화적 배경과 복식

2.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전통적 복식재료

III.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식재료에
나타난 유럽적 요소

1) 직물

2) 구슬자수

3) 금속 세공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When considering clothing of the North American Indian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North American Indians.

With the coming of the Europeans, the North American Indians adopted new materials of clothing and ornamentation and added European elements to their own dresses. New materials appeared in textiles, beadwork, and metalwork.

The introduction of the "true" loom and steel needle by the Spanish led in the New World to the development of a weaving culture. Cotton cloth, in calico prints, gingham, or plain were made into dresses, and colorful applique, patchwork designs adapted from the white women. Cloth made an immediate impact, replacing skin that is so time-consuming in preparation. Glass beads, pony beads, seed beads and ribbons were used to create adornment in Indian clothing. Brass, tin and silver were used among Indian metalworkers to make some ring, necklace, bracelet, etc.

I. 서론

복식은 한 시대, 사회의 반영이며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법, 신앙, 예술, 가치관 등의 비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도 포함하여 하나의 전체로서 문화를 반영하고 표현하는 문화현상으로서 다른 문화요소들과 상호관련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전체로서의 한 사회와 문화를 구성한다. 따라서 복식의 역사는 그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통하여 고찰되는 인류역사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복식이 착용된 역사적 환경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 사회의 문화는 시간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체계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며 그 변동의 속도와 성격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문화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발명과 발견, 전파, 접변, 그리고 수용 등을 통하여 언제나 변화하며, 이러한 문화의 변동은 하위문화체인 복식에 가시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전통적인 복식에 영향을 미친 유럽문화와의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다른 민족들과 같이,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식은 자연발생적인 역사속에서 성장하여 점차 고도의 기술로 제작되어진 전통성과 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전통적인 복식은 유럽문화와의 접촉으로 계속적으로 변화했고, 복식의 재료, 형태 그리고 스타일은 유럽인과의 무역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 결과 인디언의 복식은 전통적인 복식(non-European), 유럽 복식재료의 도입으로 인하여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변화된 복식, 그리고 유럽 스타일의 복식 등 3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Pectea, 1979).

그러므로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식에 관한 연구는 유럽인과의 역사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이 요구되며, 그 역사를 첫째 유럽인과의 접촉 이전의 몇만 년에 걸치는 독자적 문화창조의 긴 역사와, 둘째 접촉이 시작된 이후 그 문화의 파급에 대한 저항의 역사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기존의 문화요소들

이 새로이 등장한 유럽의 문화요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문화변동을 유발하면서, 인디언의 전통적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관련이 깊고 이들의 변화에 함께 수반되어 변화하는 복식의 특성은 인디언의 전통복식에 있어서도 일대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그 변화의 양상이 복식에 뚜렷이 반영되어, 그 이전의 전통적인 복식과는 재료, 스타일, 장식적인 부분에서 뚜렷이 구분되어지며, 이는 문화적 변화와 복식 스타일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제시하는 또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컬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래(1492)하여 유럽 문화와의 접촉이 시작되면서 문화전파로 인한 1600~1900년대까지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식재료에 나타난 변화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즉,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전통적 복식재료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되었으며, 유럽인이 그들의 복식재료의 변화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북아메리칸 인디언에 관련된 문헌과 자료를 수집하여 그것을 토대로 문헌적 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식재료의 변화 연구과정에 앞서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전통적 복식재료를 간단히 고찰함으로써 변화과정의 이해를 증진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전통복식에 사용되었던 많은 재료 중에서 직물, 구슬자수, 금속세공 등 3가지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문화적 배경과 복식

한 민족이나 부족의 복식은 그들의 의식, 감정, 정신, 사상, 정서 그리고 문화성과 깊은 관련성을 갖으며 민족이나 부족의 집합적 사고를 표출한다. 다시 말해서, 각 민족이나 부족은 시대마다 주어진 독특한 생활환경 속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하며, 복식은 고유한 독자성과 문화적 개별성을 반영하는 하나의 문화요소이다.

이에 북아메리칸 인디언 복식재료의 변화를 연

구하고자 할 때,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아메리칸 인디언의 역사는 유럽인과의 접촉 이전과 이후로 대별할 수 있으며, 유럽인과의 접촉 이후의 역사는 농업을 위한 토지를 획득하기 위해 원주민 인디언을 그들의 토지에서 모조리 청소하고, 그곳에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을 입식, 식민하는 이른바 「청소와 식민」을 기본적 정책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두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學園 世界大百科事典,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컬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래(1492)하여 스페인, 영국, 프랑스의 유럽 문화와의 접촉이 시작된 이후의, 특히 북아메리카의 역사를 두 시대 (1) 군사적 정복과 무력 저항의 시대(1600~1880), (2) 문화적 파괴와 민족적 재생의 시대(1800~현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구분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고 나서, 정복자들은 인디언들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수용하도록 강요하였고, 그러한 강제적인 강요가 전부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인디언문화의 전반에 많은 전통문화요소들이 파괴 또는 소멸되는 등 유럽인과의 접촉시대의 문화적변현상은 인디언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흔적을 남겼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양상은 유럽인과의 접촉 이후의 복식의 변천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1) 군사적 정복과 무력저항의 시대는 다시 1600~1760년대의 식민지 시대, 1760~90년대 미국독립 혁명기, 1790~1820년대 문명화정책과 민족적 저항, 1830~60년대 강제이주와 남북전쟁, 그리고 1860~80년대 최후의 저항시대로 구분되어진다. 정복 초기에는 인디언들은 이미 변화된 상황 또는 생활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 유럽인의 문화요소들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또한 유럽인들의 문화를 선호하여 문명의 이점을 나누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인디언의 문화는 계속하여 유지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인디언과 백인의 접촉은 우호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나, 그것

은 신화에 불과하다. 사실은 처음부터 무력에 의한 위협과 토지의 탈취였다. 일반적으로 인디언과 백인의 접촉은 「우호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나, 그것은 신화에 불과하다. 사실은 처음부터 무력에 의한 위협과 토지의 탈취였으며, 스스로의 독립과 해방을 요구하는 인디언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대한 민족억압의 시대이었다(Alden, 1954).

16세기 이후에 북아메리카는 식민지화되어 전반적으로 문화의 독자성을 차츰 잃게 되었다. 이러한 정복의 영향력은 경제, 사회, 문화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과거와는 달리 인종에 있어서도 순수 인디언과 정복자 유럽인, 혼혈인으로 구성되고, 직물면에서도 직조방법, 장식방법, 의복착용법, 색상 등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16세기 인디언 원주민들은 고된 부역과 세금에 대한 의무가 있었고, 은광산 등에서 강제로 혹사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시기에는 모피, 다량의 천연염료를 수출하였고, 발판직기, 강철바늘, 여러 종류의 실과 모직물, 그리고 유럽인의 장식 기법이 수입되었다(Wissler, 1931).

이와 같은 새로운 직기와 재료의 영향 이외에도 유럽인의 패션의 도입은 인디언들의 의복형태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복식문화가 소개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셔츠(shirts), 레깅스(leggings), 브리치클라우트(breechclouts), 드레스(dresses), 모카신(moccasins)과 로브(robe)와 같은 기본적인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식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어졌다.

(2) 문화적 파괴와 민족적 재생의 시대(1889~1920)는 싸움에 패한 인디언 재부족을 보유지에 가두었고, 그 보유지의 토지까지 탈취하려는 도즈 일반토지 할당법으로 보유지는 점차 감소하였다. 이 시대는 인디언의 문화 즉 신앙이나 의식·복식·언어에 이르기까지 야만적인 것으로서 결별되고 부정되었으며, 이에 절망한 인디언은

고스트 댄스나 선 댄스·페요테 신앙 등의 救世종교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거나 동화의 길을 가려고 하기도 한 시대였다.

한편으로는 고유의 문화 또는 가치관·생활양식을 부활·재생하기 위해 즉 이데올로기적 생존을 위해 싸우는 인디언 부족의 복권운동이 일어났던 시대이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인디언들은 유럽인의 복식을 그대로 착용하거나 유럽계 미국인들의 복식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하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복식에 적용하여 인디언적인 것을 형성하였으나, 1934년 인디언 재조직법과 연방관리종결 정책으로 조상회귀의 지향성이 싹트게 되었다.

차츰 오랫동안 원시적이고 비문명적인 것으로 무시되어 왔던 인디언들의 전통복식은 재인식되고, 그 과정에서 존존하는 복식의 고유형태와 직물기법 등이 제조명되면서 인디언 민속박물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2.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전통적 복식재료

아메리카 대륙에는 서부삼림지, 대평원, 남동부, 남서부, 고원과 분지, 북태평양 연안 등의 지역에 다양한 부족들이 거주한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건너온 아메리카의 초기 이주민들은 신대륙의 환경조건에 적응하면서 부족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복식문화를 발전시켰다. 다른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의복은 항상 활동적이고 상징적인 기능을 주어 왔고, 식물과 동물의 털과 가죽으로 만들어진 의복과 장식품들은 고유의 환경과 기후에 보호적인 기능을 위하여 모든 원주민들에 의해 사용되어왔다. 원주민들은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의복과 장식을 사용하여 왔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개인적 정보의 주요한 전달수단으로써 의복의 개념은 직접적이고 확장적인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Turner, 1992).

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식은 유럽 탐험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왔을 때는 아름답게 염색된 가죽과 모피, 깃털 그리고 나무의 부드러운 껍질과 풀로 만들어진 스커트, 로브, 헤어밴드 등 매

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아메리카의 모든 부족들 사이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발견된 일반적인 의복형태는 몇몇 범위로 좁혀질 수 있다(Maurer, 1979).

첫째,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지역에서 헤드기어는 대개 그것의 사용을 제한하여 왔고 그리고 특정 사회내에서 남성의 위치와 관련이 있었다.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 이전에, 많은 인디언 부족들은 그들의 헤드기어에 의해서 자신들의 지위가 구분되어질 수 있었다. 둘째, 동물의 가죽이나 동물의 털 또는 식물성 섬유로 만들어진 로브는 아마도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복식품이었으며, 남·여 모두에 의해 착용되었다. 셋째, 혹독한 추위나 특별한 의식적인 목적으로 남성들이 착용한 셔츠는 항상 전쟁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남성들은 가죽으로 된 브리치클라우드를 입었다. 넷째, 레깅스는 우드랜드(Woodland), 남동부(southeast), 대평원(Plains), 그리고 고원(Plateau) 지역에서 착용되었고, 장식의 형태와 특별한 사용이 같았다. 다섯째, 두꺼운 생가죽이나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모카신은 아메리칸 인디언의 기본적인 신발이었으며, 각 부족은 그들의 모카신을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신었다. 여섯째,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의복형태에 다양한 악세서리가 포함되었다. 여러 가지 악세서리 중에서 주요한 아이템은 세시(sashes), 벨트(belts) 그리고 가터(garters), 백(bags), 네클레이스(necklaces), 팔지와 반지 등이 있었다(Maurer, 1979).

이러한 의복과 장식에 사용되었던 다양하고 독특한 재료를 식물성·동물성·금속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유카(yucca), 인디안 대마(Indian hemp), 췌기(nettle), 밀크우드(milkweed), 토착면(native cotton), 캐털로(cattalo), 메스컬(mescal), 설유카(bear grass), 세이지브러쉬(sagebrush) 등의 식물로부터 추출한 섬유를 사용하여 배들을 사용하지 않고 짜기, 뜨기, 또는 꼬기나 매듭, 편성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직물을 생산하였다(Carr, 1990).

둘째, 동물성 섬유로는 사슴, 큰사슴, 곰, 북미산의 큰사슴, 순록, 물소, 다람쥐, 수달 등의 가죽



<그림 1> 포크파인 깃촉공예
(*North American Indian Arts*,
1990, p. 87)

이 로브, 모카신, 셔츠, 레깅스, 백 등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가죽은 용도에 따라 생가죽, 무두질한 가죽, 모피로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야생 염소와 양의 털, 물새, 야생거위, 독수리, 까마귀와 같은 커다란 새의 가죽을 벗겨서 머리장식과 셔츠, 의례용의 로브와 다른 장식에 사용하였다(Hofsinde, 1968).

셋째, 식물성과 동물성 소재 이외에도 벨트, 프린지, 헤어밴드 등에 독특한 패턴을 창조하기 위해서 구슬과 포크파인(porcupine)을 사용한 깃촉공예(quillwork)를 사용하는 장식적인 기술이 많은 부족들에 의해서 행하여져 왔다. 포크파인의 깃촉공예(그림 1)는 오지 인디언들에 의해서 행해졌다. 포크파인은 길이가 5인치 정도의 부드럽고 광택이 나는 깃촉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물속에 담그면 구부러지고 엮을 수 있도록 부드러워진다. 깃촉공예의 기법은 의복이나 가죽에 평행선으로 포크파인을 나열해 놓고, 그 중간 중간을 꿰매어서 고정시키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다. 포크파인은 장식적인 디자인을 위한 토속적인 재료이었다(Whiteford, 1990).

구슬은 작은 조개, 뼈, 돌조각, 씨앗, 견과류, 콩류, 동물의 이빨과 발톱, 갑각류, 진주, 수정, 터키석, 비취 이외에 다양한 작은 돌로 되어 있었다. 또한 구슬은 색깔이 되거나 조각이 한 자개나 진흙으로도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아메리칸 인디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머리장식을 위해서 독수리, 매, 딱따구리, 칠면조, 마코앵무새의 깃털과 동물의 뿔, 펠트 등이 부족에 따라 독특한 형태로 사용되었다.

넷째,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도착하기 이전에 구리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서 발견된 유일한

금속이었다. 비록 약간의 철과 납, 포획한 은재료가 사용되었지만, 구리는 원주민들이 새로운 대륙에서 적응하면서 약 B.C 3000년경 가장 일찍 사용한 금속공예로 처음에는 도구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이후 호프웰(Hopewell) 사람들은 장식을 위하여 구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은은 아메리카의 선사시대까지 폭넓게 사용되지 않았으며, 1800년대경에 북동부에 살고 있던 이로쿼이족(Iroquois) 부족들이 그들의 장식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였다(Hunt,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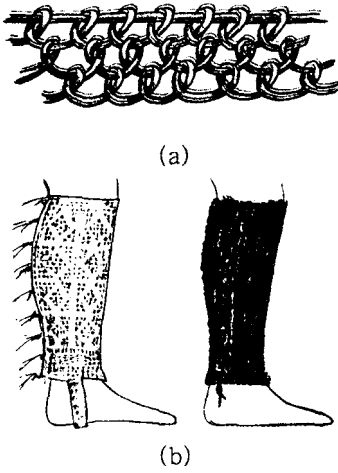
Ⅲ.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식재료에 나타난 유럽적 요소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유럽문화의 주요한 역할을 고려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문자사용 이전의 사회들과 같이, 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식세계는 스페인, 프랑스, 영국의 유럽인들과의 무역을 통해서 수입된 복식재료의 소개와 도입은 인디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수천년 동안 자신들이 직접 만든 의복을 착용하여 왔던 인디언들에게 유럽인의 직물의 소개와 재료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빠르게 받아들여졌고, 이것은 인디언 복식에 사용되는 재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럽 문화와의 접촉이 시작된 이후, 유럽인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된 1600~1900년대의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식 재료를 직물, 구슬자수, 금속세공 등으로 세분하여 그 변화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직 물

북아메리칸 인디언은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주위 환경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직물의 재료를 가지고 手紡과 手織의 기술을 사용하여 직물을 생산하였다. 유럽인이 도착하기 오래전에 이미 면섬유가 남서부 지역에서 생산되었고, 아마도 그것은 멕시코인으로부터 도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手織 이외에도 동물의 뼈로 만든 바늘과 간단한 구조의 직기를 사용되기도 하여 다양한 직조를 하였다 : 꼬기, 뿔기, 그물 뜨기, 고리 만들기, 편



<그림 2> 그물뜨기(a)와 편성과 코바늘뜨기(b)
(*North American Indian Arts*, 1990, p.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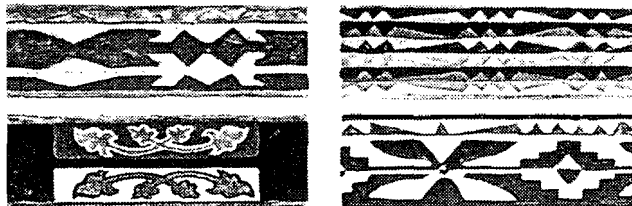
성과 코바늘뜨기, 그러나 편성과 코바늘뜨기는 19세기에 스페인들에 의해서 남서부 지역에 소개되었고, 여전히 발 부분이 없는 삭스(socks)와 레이스의 레깅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Whiteford, 1990). (그림 2)

면섬유(Gossypium)는 특히 푸에블로 지역에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면섬유(native cotton)로 된 드레스, 슬라 블랑켓이 푸에블로 부족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나, 유럽으로부터 칼리코(calico)로 염색이 되거나 강검, 또는 평직의 면직물이 소개되자 그것은 드레스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이것은 처음에는 인디언 스타일로 재단되었으나, 후에는 유럽여성들의 패션과 비슷하게 재단되었다. 푸에블로 지역에 스페인인들이 1629년에 양을 들여온 후에 사용되기 시작한 모

작물은 보통 장식이 없는 진한 푸른색이나 검은색의 셔츠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1800년대 후반에 상업적인 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자, 표백이 되지 않은 머슬린(muslin)이나 프린트된 면직물로 셔츠를 만들었다. 벨베티(velveteen)셔츠는 19세기 후반에 인기가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Roediger, 1991).

강철바늘과 가위의 전래는 인디언들에게 더욱 커다란 축복이었다. 아플리케(applique)장식 즉, 천 조각이나 리본을 잘라서 다른 색깔의 천이나 가죽에 붙이는 것이 행하여졌다. 무역으로 수입된 천이 아플리케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기술이 가장 잘 적용된 것이 북서부의 프란벨이나 펠트의 "버튼 블랑켓(button blankets)"이었다. 이것은 블랑켓 위에 토템의 의미를 지닌 디자인으로 아플리케가 제작되었고, 무역으로 수입된 하얀색 자개단추(진주조개로 만든 단추)로 블랑켓의 외곽선을 장식하였다. 이전에 블랑켓은 로브 또는 케이프로써 인디언들이 착용하였으며 염소털이나 무거운 면직물로 만들어졌다(Marz & Nono Minor, 1972).

리본 아플리케는 1750년에 북동부의 인디언에게 프랑스인에 의해서 소개된 것으로, 실크리본이 처음 만들어졌다. 이후에, 더 싸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넓은 천의 리본으로 대체되었다. 리본 아플리케는 정교한 꽃무늬의 디자인의 사용과, 각이 진 형태의 모자이크, 바탕색상을 보여주기 위한 오픈형태가 있었고, 대조적인 색상의 방형으로 재단하고 바느질하였다. 이것은 여성복의 끝단을 장식하기 위해서 또는 브리치클라우트, 레깅스와 모카신을 장식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Whiteford, 1990). (그림 3)



<그림 3> 리본 아플리케 디자인
(*North American Indian Arts*, 1990, p. 95)

플로리다의 세미놀족은 족의 여성들은 독특한 의복을 만들었다. 여성용의 긴 스커트와 헐렁한 블라우스, 그리고 남성용의 헐렁한 소매가 달린 셔츠. 이러한 의복은 백인여성들이 그들의 의복에 사용하는 패치워크(patchwork)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고(Feder, 1958), 1910년경에 패치워크는 애플리케로 대체되었다.

1870년대 이후로 유럽으로부터 화학염료가 수입되면서 천연염료들은 자연스럽게 폐기되었고, 자홍색, 빨간색, 핑크색, 푸른색, 보라색, 노란색, 오렌지색, 그린색 등의 많은 아닐린(aniline)염료로 대체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소수의 보수주의적 인디언들은 아직까지도 화학염료가 아닌 전통적인 천연염료에서 색상을 추출하며 계속 사용하고 있다.

유럽과 활발하게 무역이 행해지자, 선호되는 직물은 "Stroud cloth"로 그 명칭은 블랑켓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영국의 작은 공장에서 따왔다. 그것은 영국의 Stroudwater에 만든 무거운 모직물이었고, 공장에서 염색자국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값싼 "blotter cloth" 옷감이었다. Stroud cloth는 빨간색과 푸른색으로 때때로 녹색으로 염색되었고, 하얀색의 식서가 있기 때문에 종종 하얀 스트라이프가 아래로 떨어지는 로브의 디자인으로 사용되었다. Stroud cloth는 브리치클라우트, 레깅스, 드레스 그리고 가벼운 로브에 사용되었던 가죽을 대신하게 되었다(Holm, 1958).

잉아(heddle)와 셰드(shed)가 달린 직조틀(true loom)이 스페인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남서부에 소개되었고, 1639년에는 이 발판직기가 스페인 정착자들에 의해서 수입되어졌다. 또한 draw loom과 복잡한 야드를 생산할 수 있는 자카드 직기가 프랑스인으로부터 수입되어졌다. 블랑켓과 드레스는 이러한 직기의 주요한 생산품이었다. 양모사는 남서부 지역에서 모직 드레스 또는 만타위에 자수를 놓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다.(Curtis,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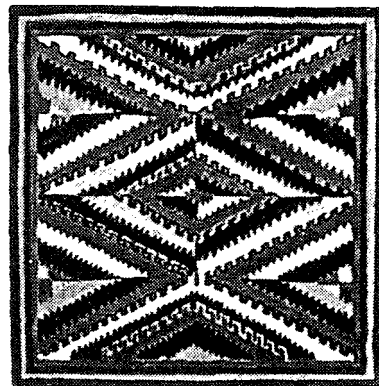
나바호족이 18~19세기에 직조에 사용한 바에타(bayeta) 천은 보통 빨간색이었으나 푸른색, 그린색, 노란색, 또는 하얀색일 수도 있었다. 인디언들은 스페인인의 유니폼의 실을 풀어서 바에

타 천을 얻었다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무역업자들을 통해서 주로 여러 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색소니 실(saxony yarn)이 1850년경에 독일의 남부지방인 색소니(Saxony) 지방으로부터 남서부 지역에 수입되었다. 이것은 빨간색이며 색소니 실로 만들어진 블랑켓은 바에타로 만들어진 블랑켓보다 더 드물었다. 아닐린 염료로 염색이 되어 색상을 더욱 화려하게 하는 저먼타운 실(Germantown yarn)은 약 1875~1880년에 남서부 지역에 소개되었고(그림 4), 이 실을 사용하여 '저먼타운' 블랑켓의 전성기를 가져오게 되었다(Marz & Nono Minor, 1972).

2. 구슬자수

구슬자수는 유럽인들이 인디언의 복식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품목의 하나이다. 컬럼버스가 1492년에 처음으로 구슬을 가져왔고, 스페인 선박이 1772년에 태평양 연안에 포피 교역을 통한 구슬이 소개되었다. 처음에 구슬자수는 새로운 재료와 기법에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작업이 어려운 깃촉공예(quillwork)의 대체물로서 사용되었다. 구슬자수는 의복, 모카신, 포우치 등과 같은 소품에 수놓아졌으며, 디자인은 전통적인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후에, 구슬자수를 놓을 만큼의 충분한 유리 구슬이 공급되었을 때



<그림 4> 저먼타운 블랑켓 1881-1910년
(North American Indian Arts,
1990, p.73)

기존의 깃촉공예는 구슬자수와 혼합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깃촉공예는 포니비드(pony beads)로 대체되었다. 말을 탄 무역업자들이 가져왔다는 이유에서 “포니비드”라고 불리는 이 구슬자수는 1800년대경에 플레인(Plains)지역에 들어왔다. 이것은 직경 약 1/8 inch이며 불투명한 체인으로 만들어졌다. 포니 비드는 모양과 크기가 매우 불규칙하였으며, 흰색과 중간톤의 하늘색이 대부분의 색상이었고 그 다음으로 검정색이 사용되었다. 짙은 담황색, 밝고 어두운 빨간색, 진한 파란색이 또한 사용되었다. 1840년에서 1850년 사이에 “시드비드(seed beads)”라고 불리는 구슬자수가 포니비드를 대신하였고, 이것은 모양이 그 자체의 직경보다 폭이 더 좁은 것으로 보통 2mm 직경의 것이 가장 크다. 시드비드라는 단어는 유럽인들이 만든 아주 작은 유리구슬을 일컫는 말로써 불투명한 것(opaque), 투명한 것(transparent), 불투명한 중심부분과 그 주위가 투명한 것(color-lined)으로 구분되었다(Duncan,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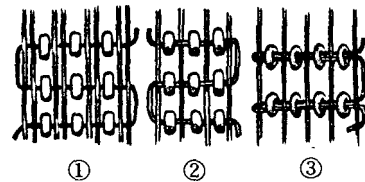
19세기 후반기 동안, 몇몇의 의복이 구슬자수로 완전히 장식되었고, 구슬장식이 점점 더 정교하게 되면서 구슬자수는 의복의 장식으로서 또는 부의 상징으로 사용되면서 과시적 소비의 한 방법이 되었다. 1885년에 글래스 비드(Glass beads)가 소개되었고, 이것은 우아한 꽃모양이나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이든 또는 두가지가 혼합되어 있든지간에 창조적인 디자인의 생산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또한 19세기의 많은 구슬장식에는 하나 이상의 면을 지닌 구슬(cut beads)이 있었다. 구슬자수의 기법에는 4가지가 있다: 위빙(wearing), 스포트스티치(spotstitch), 레이저스티치(lazy-stitch), 네팅(netting)(Marz and Nono Minor, 1972).

위빙은 활베틀이나 belt loom에서 팽팽하게 잡아 당긴 날실로 행해졌다. 한 가닥의 실에 구슬들이 꿰여졌고 날실에 다양한 패턴으로 고정되었다. 위빙방법은 가느다란 바늘을 사용하여 구슬이 꿰여져 있는 씨실을 날실 사이에 삽입하기 위해 두가닥의 날실 사이를 통과하는 그림 ①과 같은 방법과, 그림 ②에서 보듯이 구슬이 꿰여져 있는 한가닥의 실을 날실에 엮는 방법, 그리고 하나

의 씨실이 날실위에서 구슬을 통과하는 그림 ③과 같은 방법이 있다(그림 5).

스포츠스티치는 두 개의 분리된 실과 두 개의 바늘을 사용하는 것이다. 한가닥의 실에는 구슬이 꿰여지고, 다른 한 가닥의 실은 직물에 구슬을 스티치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한 가닥의 실에는 몇 개의 구슬이 꿰여지며, 이 실은 구슬이 부착될 직물스티치가 된다. 다른 한 가닥의 실은 그때 구슬이 꿰여져 있는 실 위를 지나가며 장식되어질 품목에 스티치가 되어진다(그림 6). 이러한 작업이 끝나면, 구슬들은 함께 당겨지며 끈이나 실이 제거된다. 구슬이 엮여져 있는 구슬의 수는 디자인에 따라 다르다. 비록 똑같은 수 또는 같은 색상의 구슬이라도 다른 디자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구슬자수의 기술은 북동부의 지역에서는 복잡한 선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플레인 지역에서는 꽃모양의 패턴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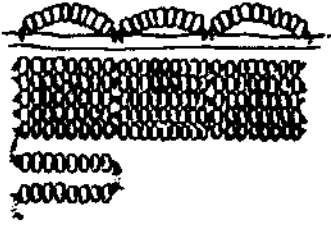
레이저 스티치는 8개 또는 10개의 구슬을 한 가닥의 실에 꿰어서 한쪽끝을 고정시킨 후에 평행의 아치형의 모양이 되도록 실의 윤곽을 잡고 다른 쪽의 끝을 천에 고정시키면 표면이 물결모양처럼 형성되는 방법이다(그림 7). 이로쿼이 족의 돈을 새김을 한 구슬자수(embossed bead-



<그림 5> Woven beadwork
(North American Indian Arts,
1990, p. 95, p.96)



<그림 6> Spotstitch sewing
(North American Indian Arts,
1990, p. 95, p.96)



<그림 7> Lazy-stitch sewing
North American Indian Arts,
1990, p.93, p.94



<그림 8> Netted beadwork
North American Indian Arts,
1990, p.93, p.94

ing)은 레이저 스티치의 한 형태로써 구슬을 째 째이 모으고 패드를 가지고 그 디자인을 밀어올림으로써 아치형의 스티치가 강조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때때로 모카신위에 스포트 스티치와 함께 사용되어지지만, 특히 벨벳으로 만들어진 포우치를 장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네팅은 구슬들이 매듭이나 고리를 대신하는 부분에서 그물모양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하여졌다(그림 8). 이것은 보통 둥글게 되어 있는 표면을 덮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래틀(rattle)은 오늘날 “고드 스티치(gourd stitch)”로 종교적 의례행사에 사용되고 있다. 아파치(Apache)족의 여성의 칼라, 모헤이브(Mohave)족의 커다란 케이프형의 칼라, 코만치(Comanche)족의 포우치(pouches), 크래들(cradle) 등에 이러한 그물모양의 구슬자수가 사용되었다.

3. 금속세공

유럽인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래하기 전에, 비록 약간의 철과 方鉛礦이 사용되었고 은이 소중이 여겨졌지만, 동은 북아메리카에서 만든 유일한 금속이었다. 동은 부기, 장식과 그릇 등의 제

료로 인디언들에게 사용되어졌다. 유럽의 무역업자들이 철을 가져왔을 때, 인디언들은 도구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로 하였다. 인디언들은 은제품의 장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모피류를 무역하였고, 얼마되지 않아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였다. 금속류는 인디언이 유럽인과의 무역에서 또 하나의 인기있는 품목이었다(Whiteford, 1990).

나바호(Navaho)족은 멕시코인들로부터 은을 세공하는 방법을 배웠고, 첫번째 은세공을 한 것은 약 1853년경이며(Marz and Nono Minor, 1972), 은, 금, 낫쇠 등은 1700년대 후반 이후에 무역업자들이 가지고 들어왔다. 이것들은 특히 팔찌와 귀걸이, 반지와 같은 보석류로 만들어졌고, 디자인은 유럽 스타일로 꾸며졌다. 여성의 드레스위에 바느질을 하기 위하여 낫쇠, 은, 주석은 작은 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낫쇠는 얇은 판으로 두들겨져서 초기에 동과 같이 장식용으로 사용되었다.

1800년대에 이르러, 은은 이로쿼이족들에 의해서 훌륭한 브로우치의 재료로 이용되었다. 그 부족들은 플레인 부족의 금속세공자들에게 은을 소개하였다. 새기의 전환점에서 은은 북서부 연안의 부족들 사이에 정교한 팔찌와 핀의 형태로 소개되었다. 처음 은은 코인(coin)의 형태에서 둥근 브로우치로 만들어졌고 여성의 블라우스에 꽂았다. 남성들은 은으로 된 피스메달(peace medal), 헤드 써클리트(head circlet), 노우즈펜던트(nose pendant)를 착용하였다. 프랑스의 선교사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후에는 십자가 형태로도 만들어졌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어졌다. 그것은 얇은 판으로 두들겨진 후에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져서 구상한 디자인으로 붙여졌다. 그 디자인은 송곳으로 새겨지거나 어떤 틀에 넣어 주조되었다. 은은 남서부와 북서부의 부족들의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금은 몇몇의 현대적 숙련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디언 금속세공자들 사이에서 결코 폭넓게 사용되지 못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럽 문화와의 접촉 이후 1600-1900년대의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전통적 복식재료에 나타난 변화를 직물, 구슬자수, 금속세공으로 세분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강철바늘과 발판직기, 재봉틀의 도입은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방적기술의 발달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아닐린 염료로 염색된 저면타운실과 색소나실이 수입되었고, 상업적인 직물인 바에타를 받아들임으로써 직물에 새로운 용도와 기능을 갖게 되었다. 또한 직물의 장식적인 측면에서 아플리케, 페치워크, 리본 아플리케의 기법이 도입되었다.

둘째, 기존의 깃죽공예는 시간의 절약과 편리함과 장식성을 높여주는 구슬의 색상과 텍스처어 때문에 포니비드와 시드비드, 글래스비드 등으로 대체되었다.

셋째, 주석과 은, 놋쇠, 금과 같은 금속세공방법이 소개되었고, 이러한 세공법은 의복의 부분적 장식과 팔찌, 귀걸이, 반지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결론적으로,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식은 유럽 문화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특히 유럽인과의 무역을 통한 새로운 복식재료의 채택은 그들의 복식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식재료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럽인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함으로써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변화와의 관련성이 요구됨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문헌

- 박영신, 변동의 사회학, 학문과 사상사, 1983.
 이광규, 문화인류학개론, 일조각, pp.85-87, 1989.
 임숙자, "복식문화와 여성", 복식문화학회지, 제4권, 제2호, 10월, 1996.
 學園 世界大百科事典, 19卷, 학원출판공사, p.379, 1993.

- 한상복외,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p.400, 1994.
 허인숙, 나바호(Navajo)작조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Alden, John R., The American Revolution, *New American Nation Series*, 1775-1783, 1954.
 Carr, L., Dress and Ornaments of Certain American Indian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Antiquarian Society*, New series 11:381-454.
 Curtis, Edward S., *The North American Indian*, Vol.12, 17, New York : Johnson Reprint Company, 1970.
 Duncun, Kate Corbin, Bead Embroidery of the Northern American:Style, Design Evolution and Transfer, Ph.D. dissertation, Dept of Art History, University of Washington, p.80, 1982.
 Ember, Carol R.& Ember, Melvin, *Cultural Anthropology*, Prentice-Hall, Inc., p. 288, 1997.
 Fecteau, Susan, *Primitive Indian Dresses : Leather Dress Styles and Decoration*, Cheyenne, 조 : Frontier Printing, p.4-9, 1979.
 Feder, Norman, *Seminole Patchwork*, *American Indian Hobbyist*, 6:1-18, 1958.
 Hamilton, J. A., Dress as a cultural sub-system:A unifying metathery for Clothing and Textiles, *C.T.R.J.*, 6(1), Fall, p.1-7, 1987.
 Herskovits, M.J., *Man and His Works*, New York : Alfred A. Knopf, p.488, 1960.
 Hofsinde, Robert, *Indian Costume*, New York : Morrow, 1968.
 Holm, Bill, *Plains Indian Cloth Dresses*, *American Indian Hobbyist*, pp.4-5, 1958.
 Hunt, W. Ben, *Indian Silversmithing*, Milwaukee:Bruce Publishing, 1960.
 Maurer, Evan M., Symbol and Identification in North American Indian Clothin, *World Anthropology*, Mouton Publisher, 1979, p.

- 119.
- Maurer, Evan M., *Ibid*, pp.121-122.
- Medford, Claude, Jr, Native Clothing of the Southeastern Indian People, *Indian America*, 1975, 9(1):42-47.
- Minor, Marz., & Minor, Nono, *The American Indian Craft Book*,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pp. 76-77, 1972.
- Minor, Marz., *Ibid*, pp.226-230.
- Moore, Wilbert E, Social Chang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 14, New, York : The Macmillan Co.and Free Press, p.556, 1968.
- Turner, Geoffrey, *Indians of North American*, New York :Sterling Publishing Company, Inc., pp.73-97, 1992.
- Roediger, Virginia More, *Ceremonial Costumes of the Pueblo Indian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121-122, 1991.
- Vogt, Evons Z., Culture Chang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3), New York : The MacMillan Co. and Press, p.556, 1968.
- Whiteford, Andrew Hunter, *North American Indian Arts*, Golden Press, pp.95-95, 1990.
- Whiteford, *Ibid*, pp.87-90.
- Wissler, Clark, Indian Costumes in the United States, Guide Leaflet 63: 1-32, 1931.
- New York :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